



Auguste Rodin

The Gates of Hell

3D Modeling and Texturing class

Assingment #1

20121159 A&T 김진수

날짜

2013. 9. 9.

학번

2012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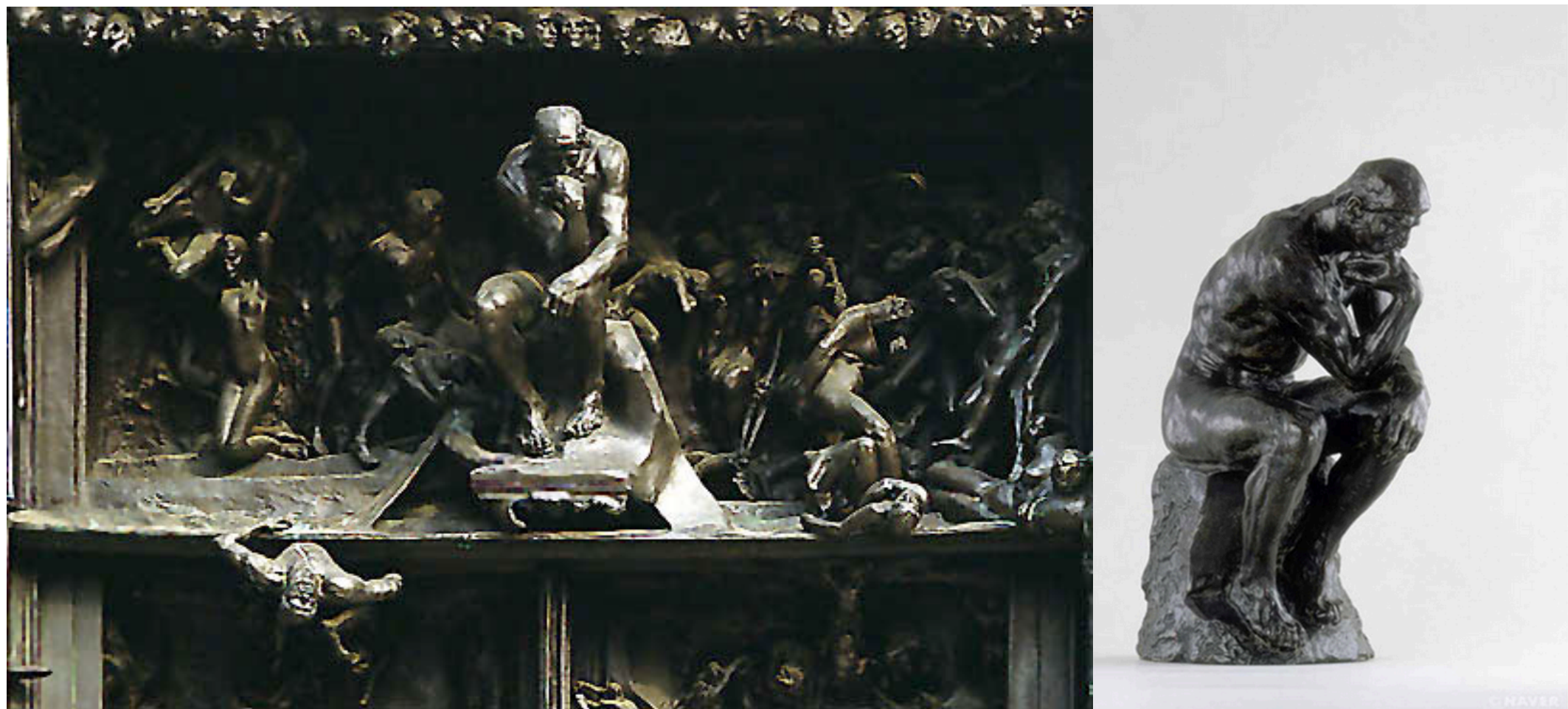
이름

김진수

The Gates of Hell. 1880-1917. Bronze. 635 x 400 x 85cm.



로댕은 조각가로, 건축 장식에 불과했던 조각 작품들을 하나의 예술 영역을 만든 사람이다. 그의 ‘지옥의 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서울의 플라토 미술관에서 이다. 그의 거대한 문 앞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 후에 나는 이 문을 보게 될 것만 같았다. 작년 유럽에 가게 되었을 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관을 너무 가보고 싶었다. 미술관 사정상 휴관을 하였지만, 나는 창문 너머로 로댕의 많은 조각상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더 많은 작업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3D 모델링 수업에 내가 모델링 하고 싶은 작업중에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다. 직접 모델링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한 다양한 표현과 느낌들을 알고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로댕의 ‘지옥의 문’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함께 있다. *The Thinker, The Kiss, Ugolino and His Children, The Three Shades, Fleeting Love, etc.* 우선 점토로 작게 제작된 186여 개의 작은 조각상들은 다시 석고로 제작되었고 그후 형상을 첨가하거나 떼어내는 등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 또 이러한 조각상들은 청동이나 석고, 대리석의 독립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지옥문의 가운데 틸파눔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 *The Thinker*’은 그중 가장 유명한 독립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창조적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옥의 문’은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은 두 짝의 문과, 양 옆을 이루는 기둥과 문틀, 가로대는 단단한 고체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게 유연하게 표현되어 있다. 힘있게 출렁이는 표면은 무척 역동적이다. 그리고 작품 속의 사람들은 눈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문속에 스며들어 있기도 한다. 작품의 모든 부분들이 입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인물들의 다양한 표정과 자세들, 그리고 차갑지만 강렬한 움직임들. 모델링과 텍스처링을 통해 나도 표현해 보고 싶고, 내가 직접 작업에 들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에 대해 더욱 관찰하고 싶다. 또 로댕의 작품 세계로 더 깊숙히 들어가보고 싶다.



Is it the best method to use 3D appication for this purpose?